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62:1-5	제2독서	코린도1 12:4-11	복음	요한 2:1-11
--------	------	-------------	------	--------------	----	-----------

◎ 말씀 <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

어느 나라에서든 혼인잔치는 즐겁고 흥겨운 자리입니다. 구약의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는 보통 7일간 지속될 만큼 큰 축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모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바닥 났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아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어쩔일인지 예수님은 마치 거절하듯이 말하십니다. “저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아드님을 굳건하게 신뢰하십니다. 이는 성모님이 하인들에게 이르신 분부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은 그 집안에 있는 돌항아리 여섯개에 물을 채우게 하신 다음, 그것을 퍼다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느새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자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반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제1독서). 이런 배경에서 볼때, 예수님이 중단될 위험에 처한 혼인 잔치를 극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도록 하셨다

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펼쳐지는 공생활 중에 성부의 극진한 사랑을 하느님 백성에게 베푸실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목숨까지 바치는 지극한 사랑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나의때” 는 바로 이 십자가의 시간을 뜻합니다. 하느님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당신 신부처럼 반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교회안에 다양한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혜로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며, 말씀 선포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은혜로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제2독서). 신랑의 사랑에 신부가 응답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교회도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에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순종의 자세를 보이십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그리스도께 굳건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맹물같이 무미건조한 삶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22일(화)	연중 제2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 2,390.00
			주일헌금	\$ 982.00
1월23일(수)	연중 제2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 60.00
			사회복지	\$ 70.00
1월24일(목)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성물방	\$ 82.00
			기타수입	\$ 880.00
1월25일(금)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오후7시30분	사제관건축	\$ 1,300.00
1월26일(토)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오후7시30분	합 계	\$ 5,764.00
1월27일(일)	연중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3명 성인: 167명
교무금 봉헌자	오세진(1-12월)이진행(10-12월)송돈희(1-6월)김화연. 이상일(1-3월)최응철. 심은희(1-2월)김규철. 김에릭. 이상진. 현익균. 금외주. 이재덕. 김옥실. 엄희수. 박용호. 이정규. 김길록(1월)			

◎신앙생활(본당의 쇠신;본당은 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미사 참회 예절에 대하여

미사가 시작되면 주례사제와 신자들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그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모든게 자신의 탓이라고 뉘우치는데, 이 참회예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프란치스코교황이 지난 2018년 1월 첫 일반알현 시간에 이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아무리 죄을 안짓고 올바르게 살았더라도 주일 미사에 가면 자신의 죄부터 성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라고 겸손되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모든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뉘우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서 죄 를 인정하는 이 참회 예절이 바로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선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거기에 태만했다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난 누구에도 잘못된 일이 없어"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좋은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아 들여 선을 실천해야만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하지만 교황은 자신의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리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두렵고 부끄러워 남의 탓을 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느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부인이 고해성사를 하러 와서는 남의 잘못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털어놔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은 또 마음안에 자기것이 가득찬 사람은 용서를 청할 줄 모르기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쓸곳 없네 라는 노래 한 구절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먼저 나의 죄와 나약함을 인정하는것,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교황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릇을 빚을 때)주무르는 점토의 연약함에 우리 자신을 견뎌보곤 하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을 대면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사가 시작될 때 참회 예절을 통해 하는 일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안병목.그레고리오의 영혼	안.스테파노 세실리아	생	본당 교우들을 위한 감사미사	고원석.바오로
생	본당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이안셀모가족	생	이안셀모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이안셀모가족

간 장 종 지

◎나무늘보◎  
 웅크리고 잠만 자는 나무늘보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잠만 자기 때문에, 뿐 아니라 느리디 느리므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아 그 어떤 사나운 사냥꾼에게도 표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은교.글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b>요르단+이스라엘</b> <b>성지순례</b>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b>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